

커뮤니티댄스 실행 모델 생태감성 무용 구조 연구*

김 옥 희**

목 차

Abstract	III. 커뮤니티댄스 실행모델 생태감성 무용 사례
I. 서론	1. 생태감성 무용
II. 생태학적 감성과 커뮤니티댄스	2. 생태감성 무용 프로그램 실행 사례
1. 생태감성의 개념	IV. 결론
2. 생태감성 무용교육과 에코댄스	참고문헌

Abstract

Research on community dance activation model ecological sensitivity dance's structure

Kim Ok-hee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cological sensitivity based community dance has been an practical attempt to build up an alternative that seeks to recover and yearn human being's innate naturalness and beauty through emotional education teaching how to feel nature-friendly life. In other word, ecological sensitivity based movement is bot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erspective about our lives through rediscovering emotion about body and a body movement that can perform the genuine communication with our body. This is an activity that experiences both nature and art, which is also a program that respects emotion that activates a variety of human senses through natural images, thereby making us get to know our unique emotion. Ecological sensitivity based body movement program is divided into body self-realization, sympathy, emotion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segments.

* 이 논문은 2012년 제 19회 학술심포지움 및 지도자 강습회 사례발표를 기초로 함.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서울무용교육원장

논문투고일: 2012. 7. 20. 심사일: 2012. 8. 10. 게재확정일: 2012. 9. 1.

Ecological sensitivity based body movement program is centered around community dance which encourages the handicapped and disabled to overcome their limited life condition through rediscovery of innate emotion by communication with natural life.

key words: ecology, sensitivity, community dance, body movement, ecodance program

주요어: 생태학, 감성, 커뮤니티댄스, 몸짓, 에코댄스 프로그램

I . 서론

인간은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간다. 즉 자연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생명체로서 근본적으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자아의 존재, 그리고 자연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을 확인하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연성을 망각한 채 빠르고 복잡한 현대 사회와 차가운 ‘관계맺음’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계화와 획일화 사이에서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박윤혜, 2010:4). 특히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은 생활권의 모든 거래와 서비스가 전자시스템으로 해결되고, 사람 대 사람의 대면관계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자연은 파괴가 계속되고, 도시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PC와 휴대전화에 익숙되면서 인간적 접촉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자연을 보고 느끼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성을 되살려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김재은 외7인, 2010:65). 이러한 실정에서 자라고 생활하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신체적, 정신적 교류와 교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共生, 인간과 인간의 상생相生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대인의 단절된 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칫 우리가 잊기 쉬운 ‘꾸밈’ 이전의 자연 상태, 즉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스러운 감각과 성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감성’에 집중해야 한다. 즉 감성 회복은 생태론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느낄 수 있는 감성교육과 함께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회복과 갈망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커뮤니티댄스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생태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댄스는 예술교육의 긍정적 가치와 함께 무용교육의 관심과 수

요가 증대됨에 따라 학교교육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 교육으로서의 실천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커뮤니티댄스의 실천은 현대사회의 생태적 위기를 의식하게 하고, 생태적 문해력을 기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상생적 삶의 의지를(임희선, 2012:44)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을 인위적 형식 이전에 존재하는 질서로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생태철학과 창의적 표현, 실천적 삶이라는 에코댄스의 구조화된 원리를 통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코댄스는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하여 양생하며 몸의 질서를 회복하고 내재적 발현을 통한 자아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당면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자아를 회복시키며, 창조적인 생성에너지로서의 신명을 일으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실천인 것이다.

커뮤니티댄스 실천으로서 에코댄스(오레지나, 2011:25)는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술 활동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본연의 질서를 되찾도록 하는 개별성과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생태적 사고와 함께 자연의 생태적 원리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느끼고 조절하는 체험과 실천 속에서 자신의 감수성을 키우며 공동체 활동 속에서 자연, 인간의 관계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의식과정과 움직임을 생태감성 무용의 구조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실행모델로서 생태감성 무용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II . 생태학적 감성과 커뮤니티댄스

1. 생태감성의 개념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복잡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와 병을 갖고 있다. 경제수준이 나아짐에도 행복지수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며, 우울증을 비롯해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학교 부적응, 자아상실의 혼란 등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며,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으로 내면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 의식이나 감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피동被動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감성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능력으로 남다른 감수성의 결과이며 또한 그 감수성은 감각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은 자연에 대한 감성으로부터 접근될 수 있다.

생태학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연결체제로 바라본다. 이러한 생태학을 물리학자Capra(1998)는 상호의존성(관계성), 재생(순환성), 협력(공생), 유연성, 다양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연과 나를 통합하며, 자연속의 모든 자연적인 존재는 나의 생명과 동등하게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이다. 역으로 자연과 자연속의 존재인 나는 같은 하나이므로 평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생존 위기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진정한 발전의 의미 즉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은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명 가치에 대한 논의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순환하는 ‘생명성’, 각 개체의 독특함이 모두 인정되고 허용되고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 그리고 각 개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갈등하며 조절하고 협력하는 ‘관계성’ 등은 생태의 가장 기초 개념이면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오레지나, 2011:51).

감성은 외계의 자극이나 인상을 느끼고 감각을 매개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로 이어주는 감각을 통해 발현된다. 이 감각은 외부 세계와 연결될 때, 내재된 심미적 감수성(생물학적 현상)을 일깨울 수 있다. 즉 어릴 때 배운 환경교육과 학습이 평생 지속되어 나중에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임할 때도 교육을 통해 습득된 환경적 소양과 감성이 친환경적인 방향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짓기는 청소년들에게는 소양교육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태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몸 관을 기르게 하고 자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감성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지나 후기 산업자본주의 생산체계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함께 ecology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주목 받는 이유는 오염과 낭비가 없는 비산업주의적 사회 발전에 대한 희망 때문일 것이다(한혜리, 2011: 20).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인간의 권력적 관계와 질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바라보아야 한다. 대자연은 인간에게 내재된 자연스러움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모든 예술형태의 기본이 되는 미적 감각을 키우고 계발할 수 있는 오이코스-집oikos이다. 이러한 생태적 환경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생태 감성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 반응이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인지 능력이다. 그러므로 생태 감성은 현실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화와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생태예술, 움직임예술로서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감수성으로 즉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회복을 위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오레지나, 2010: 51-60).

생태감성은 대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현 활동이며 동시에 상호의존과 공존이라는 관계성 회복을 위한 생태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다.

2. 생태감성 무용교육과 에코댄스

현대인들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인간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기에 그들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태감성은 형성될 수 없다. 즉 인간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자연은 시작부터 유한하며, 이 유한성이라는 부담감은 현대인의 삶을 강하게 압박한다. 즉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의 마법은 강박적으로 현대인의 욕망을 추동시켜 타인의 몫까지도 마구 잠식해버린다. 그러나 원시사회는 현대인과 정반대로 자연을 신뢰한다. 즉 원시인들은 단순 자원이 아니라, 인간 필요를 채워주는 만물의 근원이며 인간과 소통하는 유기체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이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강한 신뢰를 갖고 있기에 현대인과 같은 정복 욕구가 없다. 그리고 과한 욕망이나, 자연을 파괴할 이유 자체가 없다. 현대인들에게 불안한 절망과 부에 대한 강박 관념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로 이해하는 생태감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인간의 신체 감각은 자연 에너지와의 교감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인 시스템에 순응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아와의 소통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오레지나, 2011a: 24-26). 그런데 현대 사회의 경쟁관계는 한 시라도 빨리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불필요한 감각은 도태시킨다. 따라서 현대문명의 습관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감은 결국 현대인들의 오감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오감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균형 잡힌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현대문명은 현대인들의 감각 능력은 퇴화시키고 있다. 즉 문명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감각의 직접성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절감과 고립감은 공동체적 감성과 생태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인간적 교류와 소통으로 세계와 접촉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넓혀주어야 한다.

대자연 속 식물성의 세계는 고요하며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 평화의 세계로 그 세계는 자신의 주어진 공간에서 자라며 크게 남을 방해하거나 힘을 바깥세상으로 뻗혀 남을 해하

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생명, 풍요, 성장, 희망’의 의미한다(정영란 역, 2000:362). 동물의 세계 역시, 자연의 한축을 담당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의 세계를 바탕으로 집을 짓고, 암수가 만나 새끼를 키우며 성장하지만,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다시 식물의 거름이 되는 대자연의 섭리를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초식동물은 식물과 동물(육식동물)의 중간자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동양학의 원리를 차용하자면, 식물은 음의 세계를, 동물은 양의 세계를 대변하며, 음의 분석 심리학⁹⁾에서 말하는 Anima(남성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여성성)는 식물의 이미지를, Animus(여성의 무의식속에 내재된 남성성)는 동물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박은혜, 2010:6). 결론적으로, 자연의 에너지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실은 더욱 건조해지고, 더욱 혼란스러워지며, 그 결과 인간성 역시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을 떠나 인간은 살 수 없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감성 무용은 에코댄스의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몸관에 기초하여 자신의 감각을 회복하고 우주와의 소통을 위한 생태적인 움직임이다. 에코댄스는 자연과의 신체적, 정신적 교류와 교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 인간과 인간의 상생의 지혜를 터득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이다. 생태감성 무용 또한 물질문명 속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감성’을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스러운 감각과 성향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적 움직임이다. 따라서 생태감성 무용은 생태적인 예술 활동으로서 친환경적인 감수성 키우기, 정서순화, 관계형성의 친밀감, 단체 활동의 친화력 등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전, 끈기, 규칙알기, 조절하기 등으로 자신감을 회복하여 생활기술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인지적, 개인적, 사회적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어 무엇보다 그들에게 춤과 일상생활이 친밀감을 갖게 한다. 현대인들에게 생태감성 무용은 대상자들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온 몸으로 즐기고 행복하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체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감정을 획득하게 하며 폭 넓은 이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적 움직임의 과정은 인간의 몸이 오묘하고 신비하며, 세계(자연)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이며,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임을 감각하게 한다.

Ⅲ. 커뮤니티댄스 실행모델 생태감성 무용 사례

1. 생태감성 무용

1) 생태감성 무용의 구조

생태감성 무용은 몸의 질서를 이해하는 생태적 몸관에 기초하여 자연의 이치를 알고, 느끼는 즉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생태적 움직임이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치는 의식적인 활동으로 오감을 열어 감각하고 느껴보는 자기 인식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생태감성 무용은 자신의 고유한 감수성을 계발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 자기 삶과 일상적 경험의 진정한 책임자가 되어 세상에 귀를 여는 법을 배우고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 사실, 그동안 자연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연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존재한다.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생태 공포증을 가질 수도 있다. 생태감성 무용은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일소하고 자연스러운 애착형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으로 부터 실천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혹은 강제로 표현하게 하는 것 보다 스스로 관찰하고 느끼고, 스스로에게 왜 그럴까하는 의문과 함께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몸짓을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과 몸짓이라는 의식적인 체험과정은 자연과의 만남의 시작이며 감성이 열리는 과정이다. 도심의 아스팔트에서도 생명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에서도 생명의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생명들이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들이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그 관계를 떠나 살 수 있는 생명은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과정이다.

생태감성 무용의 선행연구로 진행된 에코댄스의 구조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코댄스는(오레지나, 2011:38)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환경環境, environment과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 생태Eco와 신체를 통한 사상과 감정의 표현인 무용의 주요한 개념들을 기초로 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으로 구조화하였다. 생태감성 무용에서 의미하는 생태적 움직임 또한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몸관에 기초한 신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개체의 독특성과 개체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소통의 다양한 상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통한

다. 즉 주관적 시간, 공간, 힘으로서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와 각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오레지나, 2011:40).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의 소통으로서 생태감성 몸짓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삶의 전략과 경쟁, 타협의 현상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자 한다. 풀과 나무, 새와 물고기, 조그만 곤충 등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략에 대해 감수성으로 느끼고 그 에너지와 움직임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지면(地面)을 딛는 규칙적 리듬, 오른쪽 왼쪽을 반복하는 데서 복잡하면서도 균형적인 울동 패턴, 곤충의 발 움직임, 새들의 날개 짓, 물고기, 벌레, 해파리 뱀에서 볼 수 있는 파동과 같은 움직임에서 다양한 몸짓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감성 무용은 또한 자연의 이치에 입각하여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몸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주에 질서가 있듯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 그 몸의 질서대로 몸의 질서를 회복하여 얻게 되는 온전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신체를 의미하고 있는(오레지나, 2011:50) 에코댄스에 기반하고 있다.

생태감성 무용은 생태적 움직임의 표현과 실천으로서 자연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몸의 ‘감수성 깨우치기’ 과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과정이며 동시에 자신의 몸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무용으로 의식이 개입되어 있고 동시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행위를 의미한다.

2) 생태감성 무용 프로그램 모델

생태감성 무용은 생태적 철학과 명상을 통해 인간이 투영된 경쟁적인 기존 움직임에서 벗어나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감수성을 깨우치고 체험하는 창의적 표현단계로서 실행된 감수성 존중 프로그램이다. 개체의 독특함과 개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며 이러한 창조적 에너지가 생명성의 진정한 의미이다. 신체자각-교감-감성표현-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춤을 자리하게 하는 과정으로 실행된다. 다음은 생태감성 무용의 구조이자 단계적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 신체자각 영역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건강한 자아형성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빈약한 자아상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사실적으로 빈약한 신체상은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체 인식을 위한 접촉과 비언어적인 활동은 신체 감각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따라

서 신체자각 영역에서는 감각열기와 리듬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한다. 리듬을 통한 반복적인 움직임 활동은 인간의 뇌에 원초적인 자극과 함께 감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활동은 정서적 몰입감을 통해 신체자각과 함께 신체적 이완을 가져다준다. 이는 몸과 마음이 일체되는 감성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다.

나. 교감활동 영역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한다는 것은 자연의 일부로써 자신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이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즉 사람이 자연환경과 교감하면서 쾌적함이나 즐거움, 편안함 등 긍정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다. 이는 시각적으로 자극받고 그것의 반응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지각의 수준을 높이고 활동에 대한 주의집중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감활동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받은 시각적 자극을 인상이나 이미지로 지각되었던 것을 상상력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정경 등을 그리게 된다.

다. 감성표현 영역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은 남다른 감수성의 결과이고 남다른 감수성은 감각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무용에서 감성은 표상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확고하고 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대상자에게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내부세계에 접근하여 정신적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게 된다. 어떤 한 곳의 감동적인 자연경관, 기쁘거나 혹은 애절한 정서, 생활정경, 어떤 기분이나 정취 등이 감각자료나 감각형상으로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기본적인 특징이 외양이라면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 내부에 잠재된 감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한혜리, 2008:8-9).

라. 생태감성 소통영역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의 소통을 통해 위로 받게 되고, 나아가 자기 신체와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이완을 체험을 하게 된다. 즉 스스로 자연과 하나 되어가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느끼며 몰랐던 자신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나'를 알게 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소통의 단계에 이른다.

표 1. 생태감성 무용의 구조

단 계	활 동
신체	호흡/ 감각열기 / 신체자각
교감	관찰 탐색 오감체험/ 움직임. 리듬/ 관계형성
감성	감각반응, 이미지 모방 텔링(판타지스토리)/ 상징화
소통	감성품짓 나누기

2. 생태감성 무용 프로그램 실행 사례

1) 기획의도

생활시설 장애인들은 원하였던 혹은 원치 않은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여 장애라는 제약 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스스로 자 조적인 생활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궁극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직원의 지원을 통해 받는 것이다. 이는 자조적인 생활의 독립에 대한 욕구보다는 상시적으로 수혜 받는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며, 시설생활 중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 지가 많다.

이러한 시설 장애인들에게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사회’라는 심리적인 ‘벽을 넘 어서’ 그들의 감성과 원초적인 예술 능력을 이끌어내어 자신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 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정된 공간의 폐쇄성으로 생활 활동의 범위가 반복적이고 그로인해 표현력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따라서 시설 장애인들에게 지역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단체생활로 인해 저조해진 감성을 개방적인 표현력으로 이끌어 내고자 생태감성 품짓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즉 시설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내재된 감성을 발 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느끼 는 자신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예술과정을 통해 즐거움으로 나누는 커뮤니티댄스를 통해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실행

(1) 수혜기관

본 프로그램은 서울무용교육원이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3년간 서 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재활원 성인장애우 남자 12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댄스를 실

행하였다. 기관은 생활인의 잔존능력과 소질이 성장·발달하도록 도와 한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운영목적을 두고, 의료적 재활치료, 특수교육, 사회적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8명의 장애인들이 6개의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장애인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생활 체험가정으로 2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2) 대상자 구성

- 구성 : 지적 장애우 12명(소그룹) / 남자성인 30~42세
- 규모 : 주1회 2시간 30차시(장기)

(3) 수업목적

시설장애인에게 몸짓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표현 욕구와 함께 움직임 이끌어낸다.

(4) 수업내용

가. 30차시 활동 프로그램

회	영역	활동	주제	수업내용
1~8	신체 지각	감각열기	마음열기 관계형성	- 신체자각 - 신체확장
		리듬과 공간	리듬알기 공간알기	- 리듬을 통한 신체지각 - 공간탐색 즉흥움직임
9~12	교감	관찰탐색	오감으로 느끼기 움직임 자극	- 호흡하기 - 식물과 곤충 - 에코필팡팡댄스 ♪♪♪
13~23	감성 표현	감각반응 상상표현	이미지 모방표현하기 이미지 상징화하기	- 이미지 텔링하기 (타자의 마음으로 말하기) - 상징화 몸짓
24	현장 학습	숲 속 체험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	- 땅 속 친구 만나기 - 물 속 친구들과 함께 해요 - 바람요정과 놀아요
25~30	소통	생태감성 몸짓공감하기 함께하기	발표, 공연	<자연 속 춤추는 몸짓>

나. 활동 프로그램 세부 계획안

- 차시: 10차시
- 프로그램 장소 :재활원 강당
- 참여인원 : 10명
- 학습단계 : 교감단계(관찰탐색, 이미지모방)
- 학습주제 : 덩굴이야기
- 학습목표 : 나무를 관찰하고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의 몸짓을 느낀다.
- 학습내용

① 신체열기

- 앉아서 호흡하기: 풍선불기 / 온 몸을 호흡하기
- 호흡하면서 몸이 점점 커지기와 작아지기
- 친구와 팔을 연결하여 함께 이동하기

② 교감하기(덩굴이야기)

- 덩굴을 상상하며 이미지를 몸으로 그리기
- 덩굴을 보고 떠오르는 것 말하기

③ 감성표현하기

- 식물의 활동 상징화하기: 움크리기, 폭발하기, 배밀이, 구르기, 흔들기
- 식물의 움직임 표현하기: 상상표현 스토리텔링

④ 소통하기

- 친구와 등대고 서서 호흡하기
- 자연과 하나 되어 호흡하며 나무 되어보기

3) 프로그램 결과

시설 장애인들에게 주변 가까이 있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 몸짓을 통하여 자연생명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심으로 불러 일으켜 생태적 감수성 지수를 높이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30차시 중에서 야외 현장학습의 체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잘 연결되어 감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1) 기관만족도 설문지결과

기관만족도 설문지에서는 <생태감성·무용 프로그램>의 필요성, 정서조절, 행동변화,

자신감 향상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설문 조사결과 두 기관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두 가지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질문 1. <생태감성 무용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 된 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신체표현을 통해 의사전달을 의도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자기감정에 적극적으로 된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작은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활인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감정상태표현을 유도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야외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몸짓을 자극한 것 같다.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정성적 평가결과

목 표	계획	결과
1. 정서감	- 무기력한 감성, 저조한 표현력 등의 정서를 조절하고 주의집중력을 향상	-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음
2. 표현력	- 자연에 대한 이미지 모방을 통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음	- 몰입감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볼 수 있었음
3. 생태 감수성	- 자연의 몸짓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감성 체험	- 자연에 대한 모방 몸짓을 통해 스트레스와 같은 긴장감이 해소되고 생태감성이 향상됨
4. 사회성	-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관계의 능력을 향상.	-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됨

(2011년 사업평가서)

IV. 결론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속에서 발전을 위한 개발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돈, 외모, 권력 등을 위해 질주하고 있다(오레지나, 2011b:45). 경쟁과 질주는 현대 사회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슬로우 라이프와 함께 자연을 느끼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성 회복이 더욱 절박한 실정이 되었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신체적, 정신적 교류와 교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

인간과 인간의 상생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여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태적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생태감성 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감성은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과정이며 동시에 자신의 몸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무용으로 몸의 ‘감수성 깨우치기’ 과정이다. 즉 생태감성 무용은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몸관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느낄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회복과 갈망에 대한 생태적 접근이다. 나아가 생태감성 무용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이며,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신체를 매개로 나, 타인,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무용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은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고유한 감수성을 깨우치는 감성 무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감성 무용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욕구를 파악한 후 수혜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설 장애인에게 실행한 사례이다. 본 프로그램은 시설 장애인들에게 지역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대상자들에게 집단생활로 저조해진 표현력을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감수성을 개발하여 개방적인 표현력으로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

둘째,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감각적인 반응을 지각하고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생태적 몸짓 활동을 통해 집단생활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으로 인한 저조한 감정 곡선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긴장감이 해소 되어가는 정서적 건강함을 보였다.

넷째,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생태감성 무용은 대상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조화를 통해 지역, 나, 환경이라는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댄스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화숙(2010), “무용과 예술교육”, **무용교육의 힘**,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서울: 댄스뷰.
- 김화숙(2011), **Community Dance**,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김화숙(2010), “춤으로 열어가는 제주무용교육의 미래교육” 제주무용교육원, 기념세미나 자료집. 제주문화재단 6층 회의실, 17-26.
- 문순홍(2006),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 박윤희(2010), “자연이미지를 통한 현대인의 감성표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학회 **모드니예술 제3집**, 51-60
- _____ (2011a),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표”, 한국문화예술학회 **모드니예술 제4집**, 25-33
- _____ (2011b),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39-51.
- _____ (1997), “자연형태와 예술적 형상의 비교”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20집**, 137-165.
- 임희선(2012), “생태 예술교육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 송명규(2008), **현대생태사상의 이해**, 서울: 따님.
- 정영란(2000), **식물성의 사유**, 서울: 마음산책
- 한혜리(2008a), “무용에서 이미지와 상상의 관계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6집 제2호**, 8-9.
- _____ (2008b), “무용에서 감성과 창의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9집 제2호**, 6-7.
- _____ (2011),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1호**, 20.
- Durand, J. & Gindre, R.(2002), 최윤경(역, 2006), **생명의 탄생**, 경기: 도서출판 달리.